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수상자 발표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수상자 프랑소와 노체 (Francois Knoetze)

- 하나금융그룹 후원으로 2014년 제정되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시 마다 시행되는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올해로 5회째 맞아
- 2023년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에서 4채널 비디오와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한 설치 작품 <코어 덤프(Core Dump)>(2018-2019)의 작가 프랑소와 노체 수상
- 심사위원들은 수상자의 작품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오늘날의 기술 환경을 형성하는 복잡한 역사와 사회·문화적 생태를 탐구하는 강력한 작품이며, 장소-특정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제작과 폐기 방식이 미래 세대의 미술 생산에 본보기가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수상을 결정
-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시상식 개최, 수상자에게 상금 3,000만 원과 트로피 수여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작가 40명/팀 중에서 프랑소와 노체(Francois Knoetze)를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수상자로 발표하였다.

- 올해 다섯 번째 개최되는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은 심사위원장 김희영(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심사위원으로 알리아 스와스티카(죽자카르타 죽자비엔날레재단 디렉터), 움베르토 모로(뉴욕 디아예술재단 프로그램 부디렉터), 레이첼 레이크스(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 감독),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을 초대, 열흘간의 사전 검토와 현장 검토 및 토론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작가 프랑소와 노체는 조각,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폐기물, 소비와 물질문화에 관한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작품과 활동을 만들어 온 현대미술가이다.

- 비엔날레 출품작 <코어 덤프(Core Dump)>(2018-2019)는 광섬유 케이블, 철재의 이동, 상충하는 근현대사, 하천 시스템과 무역로와 같은 복잡한 관계망과 네트워크로 얽혀 있는 네 도시; 킌샤사, 선전, 뉴욕, 다카르를 배경으로 하는 4채널 비디오와 한국의 전자폐기물을 활용한 조각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여러 도시에서 만들어진 비디오 연작은 푸티지, 퍼포먼스 기록 영상과 역사적 인터뷰 자료를 재구성하여 불확실성과 지속불가능성이 교차하며 붕괴 직전의 디지털 신경계를 그려낸다. 본 작품은 디지털 기술, 사이버네틱스, 식민주의, 비동맹 운동에 관한 개념과 역사를 훑으며 시공간에 관한 뚜렷한 감각을 형성하며, 인간의 연결과 서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장소-특정적 설치를 위해 한국에서

수집된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 심사위원들은 본 작품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오늘날의 일상을 점유하는 기술 환경과 관련한 지역의 상황을 ‘맵핑’ 하는 복합적이고 강력한 작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작품의 서사가 기술 환경과 연계된 지정학적인 맥락, 경제적 영향, 문화의 생산, 소비와 폐기, 권력의 분배 등 다층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아우르며,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작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선정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 김희영 심사위원장은 “올해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매체를 포용하는 작품들을 통해 ‘지도 그리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동시대적 인식을 구체적이면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작가를 선정하고자 했다. 수상자 프랑소와 노체의 작품은 발전 위주의 세계관이 초래한 현재의 문제들을 드러내며 비영토적인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작품에서 보여주는 상징과 은유들이 오늘날 우리 삶의 방식과 선택에 관하여 다양하고 밀도 높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불확실성의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프랑소와 노체 작가의 수상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현지에서 수집된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한 작품의 제작 방식은 미술 생산에 관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성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11월 19일까지 계속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은 한국 사회에서 현대미술의 인지도를 높이고 향유 저변을 넓히하고자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2014년에 제정된 상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초청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 심사위

원의 심사를 통해 예술적 비전과 기여를 보여준 작가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수여해 왔다.

- 본 아트상은 예술적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미디어 언어와 활동을 성취하며, 당해 비엔날레의 주제 의식에 부합하는지가 평가 기준이다.
- 지난 수상자들로 2014년 수상자 에릭 보들레르(Eric Baudelaire) 2016년 공동수상자 크리스틴 선 킴(Christine Sun Kim)과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Korakrit Arunanondchai) 2018년 수상자 안건형, 2021년 공동수상자 아이사 흑슨(Eisa Jocson)과 하오징 반(Hao Jingban)이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현대미술가 프랑소와 노체는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즈대학교에서 미술학사 학위, 2015년에는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미클리스 순수미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품은 세네갈 다카르비엔날레 (2018),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헛 뉴어 인스티튜트(2022),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 (2019),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 (ZKM, 2018-9), 콩고민주공화국의 루뭇바시비엔날레(2019)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선보여졌으며, 수상 경력으로는 디지털 어스 펠로우십, 모질라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상,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이 있다.

□ 2023년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트로피는 김덕호, 이인화 공예가의 도자기 작품이다. 디지털의 픽셀을 상징하는 정육면체 여럿이 길게 이어지면서 이루는 새로운 형태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작동 방식을 은유한다.

□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시상식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useumofart
트위터:	twitter.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운영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7년간 미디어로 상징되는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서울시의 주요한 현대미술 행사다. 1996년부터 세 번 개최되었던 《도시와 영상》 전시에서 서울과 미디어에 대한 실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비엔날레 홈페이지 mediacityseoul.kr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트위터	twitter.com/@mediacityseoul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붙임 1. 수상자 프로필, 작품, 트로피 이미지

2.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연혁(2014~2021)

1. 수상자 프로필, 작품, 트로피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크레딧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수상자 프랑소와 노체(Francois Knoetze). 작가 제공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 2018-2019.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킨샤사> 스틸, 2018. 사진: 장 밥티스트 주아르, 작가 제공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트로피. 도자기, 제작: 김덕호, 이인화 제작, 2023. 작가 제공

2.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연혁(2014~2021)

연도	2014	2016	2018	2021
심사기간	10. 23. ~ 24.	8. 22. ~ 31.	10. 12. ~ 13.	10. 04. ~ 12. (온라인)
대상작가	42명/팀	61명/팀	60명/팀	41명/팀
심사위원	모리무라 야스마사 (요코하마트리엔날레 2014 예술감독), 안소연(삼성미술관 플라토 부관장), 정도련(홍콩 M+ 부관장), 뱅크 슬래거(우트레흐트 시각예술 및 디자인 대학원 학장), 김홍희(서울시립미술 관 관장)	후어 알 카시미(샤르자 예술재단 대표이사), 비너스 라우(OCT 현대미술터미널 베이팅 아트 디렉터),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국립현대미술 관장), 주은지(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 트 예술감독), 김홍희(서울시립미술 관 관장)	서현석(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승덕(프랑스 르 콩소르시움 공동 디렉터), 장지강(중국 CAFA 미술관장), 조정환(도서출판 갈무리 대표), 데이비스 커니스(코넬리우스 가스 토리아디스 연구자)	안규철(작가), 수잔느 패퍼(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관장), 준 앵(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기획, 수집, 프로그램 디렉터), 윤 마(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 날레 예술감독), 백지숙(서울시립미술 관 관장)
수상자	(단독) 에릭 보들레르, <시계노부 메이와 시계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 그리고 이미지 없는 27년>, 2011	(공동) 크리스틴 셴 김,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 2015 코리크릿 아룬나논 차이, <웃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찬 방에서 역사로 칠하기 3>, 2015	(단독) 안건형, <한국인을 관두는 법>, 2018	(공동) 아이사 흑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하오징 반, <나도 이해해...>, 2021
상금	5,000만원	각 2,500만원	5,000만원	각 1,500만원
트로피	박성원 유리공예가 작품	박성원 유리공예가 작품	박성원 유리공예가 작품	박성원 유리공예가 작품
시상식	11.21.	8.31.	10.31.	10.18.(온라인)

기본 정보

- 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진
(02-2124-8975/ nakwonjin@seoul.go.kr)
- 홍보 문의: 고객홍보과장 봉만권(02-2124-8912/ go1107@seoul.go.kr)
학예연구사 김채하(02-2124-8928/ chaeha@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 주소: <http://sema.webhard.co.kr>
 - 아이디: semapress
 -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2023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수상자 발표\]](#) 폴더)